





# 올해 총진군에서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과시하자

## 5월의 결승선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새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강성번영의 휘황찬란한 실재도를 받아안은 북창의 로동계급이 결승의 심심과 천백배의 용기를 가다듬으며 첫 전투에서부터 비약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명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 북창 화력 발전 연합 기업소에서

떨쳐나선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방대한 대부수파를 제1으로 끌고 오라와 탄탄한 전기의 만부하를 믿음직하게 보장하던 기술자, 기능공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심정의 퍼물 더욱 떨쳐나섰다.

생산물결이 치열하게 벌여지는 전투장마당에서 일꾼들이 승고한 애국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 투사가 되어 만전을 지고 전승으로 내달렸다.

연합기업소당위위원회는 지도 밑에 이곳 일꾼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보이리라와 탄탄한 전기에서 박력있고 참신하게



- 순회 화력 발전소에서 -

바로 이것이 현대의 로부와 확고한 신심에 넘쳐 세대의 영웅적 전진에서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철석의 맹세이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청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헌신의 앞장에 서었다.

중산층돌격의 불길로 대고 도전군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젖히려는 북창로동계급의 불같은 열의가 일터마다에 차넘치다.

지극의 일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그러나 큰 감격과 피를 바쳐서라도 더 높은 전력생산성과 함께 이루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심장속에 용암처럼 끓고 끓고 있는 열의는 오직 중산, 중산도 중산이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최대의 노력, 최고의 실적으로 총공격을 불러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날 일념으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나열을 활짝 펼치고 있다.

직장, 재판직장, 소재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 로동자, 기술자들도 기세를 올리고 있다. 공업시험소와 전기시험소의 기술자들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모든 기술자들도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전력증산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하고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북창의 로동계급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서 주인들로 키워주고 내세워 주신 배후산책위원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순진도 잊지 않고 있는 북창의 로동계급.

그렇다. 말로써 하는 총성이 아니라.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더 높은 전력생산성과 함께 이루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들의 심장속에 용암처럼 끓고 끓고 있는 열의는 오직 중산, 중산도 중산이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최대의 노력, 최고의 실적으로 총공격을 불러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날 일념으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나열을 활짝 펼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년사를 받아안은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일꾼들은 무한히 격동되었다.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운 당의 뜻을 세갈수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해는 총에 농사를 배내게 지어 열의로 모두의 가슴은 새차게 고통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풍년은 문제없다.

일꾼들은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농업부문과업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결사판침하기 위한 대개입을 토의하고 보충안정하였다.

우량품종도입문제가 최우선과제로 제기되었다.

이해 일꾼들이 중시한 것은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당의 요구였다. 그들은 이것을 자라 하여 지난 시기의 경험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보았다.

일꾼들은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러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민관을 지니고 투쟁해 나갈 각오로 분발해나갔다. 종자확보, 포진별농중매체계획을 비롯한 그 준비사업을 주도세밀하게 해나갔다.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여 이 모든것을 끌어내가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지펴졌다.

품질보증계획적성을 놓고보자, 일꾼들은 우선 지난해에 토양 분석을 진행한 유리한 조건에 맞게 포진들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면적이 많이 증산에비려 큰 포진 즉 중등에 속하는 포진들에 새 우량품종을 배치하도록 작정하였다. 일꾼들 모두가 토양분석자료를 가지고 작업반들에 내려가 초급일꾼들과 함께 눈덮인 포진들을 밟아 가면서 대장지를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토양의 립성분이 부족한데 맞게 어느 한 팔산에 쫓아가 대용원비로 생산에 쓴 450여의 원료를 받아 실어 들이기 위한 조치사업들을 짜고들었다. 또한 작업반들에서 도시 거름운반과 함께 정보당 5의 흙포산비와 1의 암조류양분 황성퇴비를 생산할 기술확보와 종중생산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지금 은 청산원이 풀어번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여 당의 크나큰 믿음에 기어 보답할 열의로,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 붉은기정신 더 높이 펼쳐가리

김종래 전기 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를 돌이 크게 세우고 내우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력을 높이 올리며 제품의 질과 수를 높이,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목표로 들어주고 힘있게 내달려야 합니다.》** 김종래 전기 기관차련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어올릴 불타는 결의를 안고 새해 전진군에 들어섰다.

지력생산의 혁명적기치를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간다! 온 기업소에 방출된 전진적의 기동에서부터 총진군, 전투속보발전을 통한 화산적경제성동의 복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진다.

연합기업소 당, 행정직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야전행진기처럼 되어 화산에 위치를 정하고 로동자들과 함께 기대에서 승리의 동풍을 높이 올리고 있다.

지하전동차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지력생산의 혁명정신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침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천만배로 말로써가 아니라 실현

## 새해 전진군길에 울리는 증산의 동음

상원 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리고 있다.

새해 전진군길에 울리는 상원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심장고 심장은 새차게 울려나오고 새 힘과 용기는 한껏 넘쳐나고 있다.

어제 그렇지 않잖아,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필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 영광의 대회로 빛내야 하고, 그리고 한결 높이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겨넣어 혁명적열의를 다져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신년사를 올해 전투승리의 강령적지침으로 받아안은 상원로동계급이 첫 전투에서부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리고 있다.

이들은 철자의 정성충동과 철도의 현대화를 담은 자기들의 임무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확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김종래 전기 기관차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붉은기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장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사기자 정경철

으로 보아온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이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제없는 노력성공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새해 전진군길에서 자력정생의 불꽃, 애국충정의 불길을 더 높이 켜켜 들었다.

신형공정을 담당한 주물제작에서 소생산을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기를 적게 쓰면서라도 필요한 소재를 짧은 시간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물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소생산을 높여가고 있다.

가공정장에도 불이 달랐다. 천만마디에서 바이나일들이 피눈을 맡아올리고 질서있게 들어선 각종 공작기계들에서 가공된 제품들이 연방 나오고 있다.

기대들마다에 가공해야 할 부품들과 그 수행날자를 탐지해 싸우고 증진의 맛배나 되는 책임을 어깨마다에 걸치고 우리 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만들던 투쟁분대로 신반공들이 심장속에 애국의 피를 떨쳐내며 헌신의 기상을 떨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조립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지금 《붉은기》4067호 조립기업을 훨씬 단축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여러가지 지휘와

글자의 세멘트생산까지 상원 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배우의 혁명정신, 배우의 중반탐색이 활화산마냥 분출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단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단원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하여 세기를 완고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신년사를 올해 전투승리의 강령적지침으로 받아안은 상원로동계급이 첫 전투에서부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리고 있다.

새해 전진군길에 울리는 상원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심장고 심장은 새차게 울려나오고 새 힘과 용기는 한껏 넘쳐나고 있다.

어제 그렇지 않잖아,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필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 영광의 대회로 빛내야 하고, 그리고 한결 높이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겨넣어 혁명적열의를 다져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신년사를 올해 전투승리의 강령적지침으로 받아안은 상원로동계급이 첫 전투에서부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리고 있다.

## 50만산대발과 성과적으로 진행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무산의 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철정방생에서 전제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 열의에 넘쳐났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1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50만산대발과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데서 나서는 확고한 담보로 마련하였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책제련련합기업소에서 김책재생산을 활성화하여 러면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철정방생산을 높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에 받아안은 무산의 로동계급은 철정방생산으로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났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50만산대발과를 진행할 데달라고 돌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연합기업소 당책임일꾼들은 로전분광산 일꾼들과 로동자들에 들어가 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노력성공과 빛내이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그

## 파철 집종수송 진행 성, 중앙 기관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파철 집종수송에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가공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충분히 보장해주고 하였다.

용광로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철생산의 주요전선을 지어왔다. 높은 열의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3호용광로의 용해공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회를 높이 발휘하여 질 좋은 쇠물을 뽑아내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었다.

3호용광로용열을 담은 작업반들에서도 헌신의 불길이 새차게 있었다. 권양기작업인, 열중로작업인, 배관작업인의 로동자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3호용광로의 정상가동에 기여하였다.

용광로직장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중앙과 연합기업소 기술집진과의 변제법에 3호용광로를 정상가동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소재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질 좋은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경북도당위위원회와 금속공업부의 지도방조밑에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철생산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 기술자들의 정성력을 적극 발휘시키며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이끌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지난 1일 3호용광로에서 새해 첫 쇠물을 성과적으로 뽑아냈다. **특파기자 리은남**

## 첫 전투에서 이루어진 자랑찬 성과

## 당 제7차대회에 뜻깊은 열의에 넘쳐나고 있다.

본사기자 리동규







